

이중언어 사전에서의 한국어 관형명사 표제어 제시

Presenting Korean Adnominal Nouns in Bilingual Dictionary

권민수 (연세대)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이중언어 사전에서 관형명사의 사전 제시 양상을 분석하고, 사용자 직관을 반영한 효과적인 제시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에는 명사에 속하면서도 일반적인 명사류의 전형에서 벗어나 보이는 것들이 있다. ‘국제 기구, 국제 정세’는 자연스러우나 ‘*국제를 생각하다, *국제가 되다’ 및 ‘*좋은 국제, *성장하는 국제’ 등의 구성은 어색하다. ‘국제’와 같이 다른 명사에 선행하여 그것을 수식하는 명사를 관형명사라고 한다. 이는 비전형적인 명사의 한 예가 되며, 형태적으로는 명사로 분류되지만 통사적 기능상으로는 후행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주되므로 관형어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 한국어 직관이 없는 학습자의 관점에서 보면 학습과 사용에서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전에서 이들을 찾으면 적지 않은 경우 하나 이상의 대역어가 명사 또는 명사에 가깝게 제시된다는 점에서 학습자 사전의 정보 제시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찾게 된다.

2. 이론적 배경

관형명사란 송기중(1992)에서 인식, 김영옥(1994:100)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4)에서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단어나 통사적 구 구성을 만드는 데만 쓰이는 요소라는 점에서 ‘형성소’라고 일컫기도 하였다. 이선웅(2000)에서 제시한 관형명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2) 가. 어떤 명사 앞에서 관형어적으로만 쓰인다.
나. 그 자신은 자립적이지 않아 조사 따위가 통합되어 쓰일 수 없다.
다. 다른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도 없다.

이중언어 사전 관련, 정영국(2009)에서는 류재순(2006)과 한명순(2008)을 언급하며 외국어 학습자들이 대부분이 영영사전보다 영한사전과 같은 이중언어 사전을 선호함을 밝혔다. 강현화·최진희(2009)에서는 언어교육용 어휘사전을 분석하며, 이중언어 사전의 교육적 효용성을 위해서는 단순 기본 의미 간 번역에 머문 사전이 아니라 언어 간 대조 분석 연구에 근거한 전문성이 관건이 된다고 하였다. 기존 사전은 주로 단순 번역식으로, 오히려 학습자의 오류를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낳기도 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학습에 많이 활용되는 이중언어 사전은 사용자가 둘 중 한 언어의 직관이 부족할 것임을 고려하여 더욱 세심한 정보 제시를 보일 필요가 있겠다.

3. 사전 제시 현황

3.1. 한국어사전의 관형명사 제시 현황

한국어 학습자 사전인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이하 <기초>)은 5만 개 이상의 표제어를 쉬운 우리말로 소개한 사전으로, 11개의 대역어 사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기초>에 등재된 표제어 중 ‘(주로) ‘N(의) ~’ (으)로 쓴다’의 의미 참고 정보가 제시된 220개의 항목을 관형명사 부류로 살폈다.

한국어 표제어를 한국어로 풀이하고 설명한 <기초>에서, 뜻풀이 형식을 살펴보면 종결형이 ‘~ 사람’처럼 명사로 된 것 60개, ‘~ 것’, ‘~ (으)ㄴ’의 명사화 형식으로 된 것이 각각 35, 134개 발견되었다. 즉 ‘간이: 기본적인 것만을 갖추어 간단하고 편리함.’, ‘강력: 힘이나 영향이 강함.’과 같이 ‘-(으)ㄴ’ 유형의 뜻풀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3.2. 한-영 사전의 대역어와 뜻풀이

<기초>의 대역어 사전인 한국어-영어 사전(이하 <한영>)에서는 메타정보 용어, 대역어, 뜻풀이 정도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한다. 앞서 살핀 220개의 관형명사류에 대해 <한영>에 제시된 대역어와 뜻풀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대역어는 일반적인 명사 어휘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와 대등하게 ‘being(-ing)’ 유형의 구성이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뜻풀이에 사용된 유개념은 기타 명사 어휘(77개, 35%) > ‘state’(72개, 32.7%) > ‘act’(32개, 14.5%) 순으로 나타났다. 가령 ‘국제’의 대역어로 ‘being international; being global’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의미에 관한 설명으로 ‘A state’라는 유개념을 활용하여 뜻풀이를 기술하였다. 품사는 <기초>와 마찬가지로 ‘명사 Noun’으로 제시하였다. 이런 가운데 일반적인 사용자가 예문을 세심히 살펴 해당 표제어에 늘 명사가 후행한다는 통찰을 얻어내기 쉽지 않을 수 있으며, 후행 성분이 필요하다고 쓰인 참고정보(reference)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4. 이중언어 화자 직관 조사

사전 제시 쟁점의 유효성과 사용자 관점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 능숙한 이중언어 화자 10명을 대상으로 직관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총 10개의 한국어 단어⁴⁶에 대한, 1)영어 번역어 및 뜻풀이 번역 제안하기 2)품사 판단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한국어 단어와 그 단어가 활용된 구 단위, 문장 단위 예문을 참고하여 응답자가 그 영어 번역어와 뜻풀이를 제안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일반 명사로 사용되는 동형어가 존재하지 않는 관형명사의 경우 모두 형용사 또는 부사와 같은 번역어를 작성하였다. 한편 뜻풀이 제안에서는 일반 명사 어휘 또는 ‘something’을 유개념으로 작성한 경우가 적지 않아, 수식어로 풀이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46. 활용한 단어는 관형명사에 해당하는 목표 단어(국제, 구급, 주한, 우리, 유독, 거대, 당면)와, 일관된 기술을 방지하기 위한 혼동 단어로서 기타 명사(국물, 만큼, 정)로 이루어졌다.

관형명사와 기타 명사(국물, 만큼, 정)에 대해 참여자들이 제시한 번역어의 품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응답자별 수식형(형용사, 부사 등) 응답 비율을 계산하고 자모비(jamov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관형명사를 관형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단위로 파악한다면 응답자가 관형명사에 수식형 번역어를 작성한 비율이 높을 것이다.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9) = 8.67, p < .001, \text{Cohen's } d = 2.74$).⁴⁷ 비모수 검정인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W = 55.0, p = .006$). 따라서 본고에서 활용한 관형명사는 기타 명사보다 영어 번역에서 수식형으로 번역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품사 판단 문항에서는 앞서 번역한 단어 중 명사처럼, 또는 형용사/관형사처럼 느껴지는 것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관형명사로 논의되던 단어, 특히 ‘국제’, ‘주한’, ‘유독’, ‘거대’, ‘당면’에 대해 명사보다 형용사/관형사로 느끼는 비중이 훨씬 많았다. 관형명사로서 제시한 ‘구급’, ‘우리’는 응답자가 명사:형용사/관형사로 작성한 비가 각각 5:5, 3:5였다. ‘구급’은 그 번역어를 대부분 ‘first aid’ 또는 ‘emergency’로 작성함에 따라 다른 관형명사와 달리 번역어 자체도 명사로서 인식하였을 수 있고, ‘우리’는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함에 따라 명사성을 강하게 인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 사전 제시 방향에 관한 논의

이상의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시 방향의 고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구 단위를 포함한 모든 용례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명사적 사용을 보인다. 둘째, 번역어의 풍부한 제공 및 뜻풀이, 표찰 제시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셋째, 구 단위 예문까지는 대역 언어 번역의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필요 시 사용상의 유의 사항(오류) 정보를 참고 상자에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사전 제시는 관형명사의 특성 실현의 정도에 따라 조사 결합 및 수식이 극히 제한되는 ‘엄격한 관형명사’류와, 다소 한정적으로 허용되는 ‘느슨한 관형명사’류로 구분해 다룰 수 있다.

한국어 관형명사를 포함한 비전형적 명사류는 단어마다 보이는 특성이 모두 같지는 않다는 점에서 사전에서의 제시가 까다로우나 실용적 학습자 사전에서의 더욱 효과적인 제시를 위해 꾸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화·최진희(2009), 「언어교육용 어휘사전 분석 연구 -국외 및 국내의 어휘교육용 사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제13호, 한국사전학회, 48~83쪽.
- 김영욱(1994), 「불완전계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학* 24, 국어학회, 87~109.
- 송기중(1992), 「현대국어 한자어의 구조」, *한국어문*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16.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이선웅(2000), 「국어의 한자어 '관형명사'에 대하여」, *한국문화* 2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5~58.
- 정영국(2009),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사전의 발전 방향」, *한국사전학회 15차 학술대회 자료집*.

47. 관형명사 번역어의 수식형 비율은 평균 0.814($SD = 0.118$)로, 기타 명사 번역어의 수식형 비율은 평균 0.267($SD = 0.141$)로 나타났다.